

제2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 총평

제2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에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에 참여해 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2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갯맘 문제’를 소재로 하여 아직 우리 헌법 체계에 명문으로 편입되지 못한 동물권의 헌법적·철학적 근거 및 행복추구권·재산권·환경권 등 인간의 권리와 동물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응시자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헌법적 권리의 충돌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뢰인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변론 전략과 논리를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철학적 고민 없이 쟁점과 결론만을 피상적으로 나열하거나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는 답안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한 공법 경시대회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과 풍부한 사고가 필요한 대회임에도 여전히 많은 응시생들이 ‘정답 맞히기’에 몰두하는 획일적인 수험 법학의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실용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중시하여 응시생들에게 의뢰인을 옹호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론 전략과 방어 논리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

나, 처벌 조항 차원에서의 방어 논리에 그쳤을 뿐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룬다는 변론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서면은 내용만큼이나 형식적인 완성도도 중요한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 조절, 도표 사용 등) 역시 심사 기준으로 함께 고려하였음을 밝힙니다.

제1회에 이어 제2회에도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상 선정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을 선정하였을 때 상의 권위가 빛난다는 의견이 강했기에, 이번에도 대상 수상의 영광을 다음 대회로 넘깁니다.

수많은 응시자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법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총평을 마칩니다.